

과학기술 환경변화와 APECL내 한국의 역할

(이명진)¹⁾

1.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현대 국제경제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주의를 지향하고, WTO 체제의 출범으로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면서 세계시장화·생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능력이 경쟁의 수단과 기준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과학기술협력은 기존의 쌍무적 협력관계를 넘어서 다자간, 지역간 협력체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지역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과학기술 협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함은 물론 과학기술 분야의 변화 현상 인지를 바탕으로 다자간, 지역 협력의 틀을 논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근접현상(즉, 과학기술의 경제적 財貨化)은 다자간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다. 세계질서가 '정치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교환과 보완의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다자간 과학기술협력에 참여하는 국가 중에서 선진강대국과 협력하는 후발국의 경우 과거와 달리 "혜택"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시장개방 등 "압력"만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에 참여하는 선진국 및 후발국 등 참여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력방안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협체(NAFTA)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아·태 경제협력체(APEC)라는 지역협력체가 새로이 등장하여 20세기 후반 세계경제 구조에 큰 변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과학기술의 발전, 과학기술 관련 조직의 변모, 과학기술의 활용의 다양화 등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 새로운 과학기술 질서

1) 과학기술과 경제의 접목

현대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과 경제의 접목현상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과학기술의 경제자원(economic resource)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국은 상업성이 높은 몇몇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투자를 경쟁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지난 3세기에 걸쳐 과학기술을 둘러싼 세계환경을 살펴보면 소위 과학의 '공유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지식의 사유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기업의 조직구조 또한 과학적 발견과 기회를 신속히 포착하고 이를 실용화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첨단 연구결과에 접하기 위하여 국경을 초월한 연구,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아·태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APEC은 근본적으로 역내 무역자유화/투자자유화라는 경제적 동기를 바탕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市場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활동이 진행될 것이고 과학기술분야의 협력활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2)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최근 기술환경 변화의 한 특징은 기술개발과정에 있어서 민간부문과 개도국이 주요 참여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다국적기업은 경쟁전략의 일환으로서 국제화를 추구하여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국제화와 관련된 주요 경향은 기술과 생산의 연계, 기술협력의 중요성 부각, 개도국의 역할 증대로 요약할 수 있다(유

성재외 1996.7)

① 기술-생산연계: 기업활동의 비교우위 결정요소 중 기술력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연구개발, 기술, 생산간의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었다.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판매, 마케팅, 생산기능과 연구개발 및 기술부서와의 feedback 메카니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생산의 연계강화가 요구된다.

② 기술협력: 기술은 기업간 무역·투자를 포함하여 국제간 활동의 조직, 관리에 있어 중요한 유인요소가 되는데 경제활동의 국제화로 인하여 지식이 창출되고 기술화되어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과 메카니즘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 기업은 국경을 의식하지 않고 연구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適地에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연구는 지리적 경계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의 성과는 더 이상 그 연구개발이 수행된 지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상업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③ 개도국의 역할 증대: 최근 신흥공업국群 국가들의 연구개발활동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창출하고 있는 다양한 기회에 보다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장의 근접 필요성, 조직관리기술의 발전, 교통 및 통신비용의 저감, 중간재 생산의 새로운 source 등장, 비용절감 압력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다국적기업들은 해외 생산기지 설립, 해외 조달, 계약생산 등 초국경적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국적기업과 개도국 기업 연구개발부문의 사이에 '설계-생산(design-manufacturing)' 제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국제 과학기술협력에서 보여 왔던 일반적인 경향 즉 공공연구기관이 주도하는 기초 혹은 경쟁전 분야 중심의 국제협력연구는 이제 변화를 맞게 되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전 분야에 걸쳐 기초과학, 생산, 공정개발,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대학의 광범위한 교육에서부터 생산공정내 기술훈련까지의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3) 학제간 연구협력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 혹은 발명에 대한 市場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과학적 지식이 형성되는 속도 및 그 방식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산업적 응용이라는 이해관계가 기초연구의 대상분야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연구활동은 점차 여러 학문분야(multi-disciplinary)의 협력추세로 변화하게 되었다.

4) 협동연구

첨단분야의 연구활동이 여러 학문분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기초 및 응용연구가 연계되는 현상은 연구활동의 주체가 개인연구자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그룹으로 옮겨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연구그룹이 형성되면 개별 연구자의 전문분야 지식은 물론, 그룹내의 통합적 해결을 가능케 하는 암묵적(tacit)이고 비형상화된(uncodified)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5) Human Network

오늘날 연구활동이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자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그룹에 의하여 주도되는 현상은 연구관리의 새로운 기능을 의미한다. 즉 첨단연구활동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그룹참여자의 형상화되거나 비형상화된 지식을 모두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신분야의 첨단연구에서는 카오스 이론에서 말하는 'self-organizing system'보다는 인적network와 긴밀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

소로 등장하고 있다.

6) 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패턴

지역내 과학기술협력활동을 통하여 공동의 이득을 얻고자 한다면 상기한 새로운 과학기술질서의 의미를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이 經濟財貨化함으로써 연구활동에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게 되었고 지식이 과거 기계에 체화되던 단계를 지나 연구자에게 체화(human embodied)되고 있다. 따라서 암묵적이고 다양한 연구자에게 체화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창의성 증진과 교류 촉진이 요청되고 있다.

첫째, 지역내 다자간 과학기술협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해서라도 연구자간의 인적 network를 구축하고 연구자의 물리적교류를 통해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연구하는 연구 team을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내 과학기술 협력활동은 과학과산업의 연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즉 과학기술의 발명이나 발견이 시차를 두고 적용되고 상업화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상업활동이 동시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기초연구에서 상업화과정을 포함하는 회원국의 포괄적인 연구연계조직을 network로 연결하여 역내 과학기술협력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APEC 과학기술 협력활동측면에서 보자면 과학기술환경의 상기한 변화 및 추세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기술개발은 더 이상 폐쇄된 연구실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고 민간부문의 생산활동과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기업은 다자간 연구·기술 협력활동의 주요 참여자로 인식되어야 하며 셋째, 이제 하나의 기업이나 국가나 타 기업이나 국가와의 기술협력 없이는 단독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과정에 있어서 개도국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3. APEC내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

1) APEC의 제약요건 : 다양성

아태지역내에서 자생적 또는 타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협력체 중에서 APEC은 가장 활발하고 대표적인 다자간 협력 forum으로 자리잡고 있다. APEC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는 초기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폭 넓게 활동영역을 넓히고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앞으로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는 여러 가지 내재적 요인을 지니고 있다.

첫째, APEC은 회원국의 구성으로 볼 때 인종, 문화, 지역적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과거 지역내 정치적 갈등을 빈번하게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으며, 아·태지역내 통합노력에 대한 내재적 저해요인으로 남아 있다.

둘째, 아·태지역은 근본적으로 지역협력체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다자적 기반(multilateral basis)이 결여되어 있다.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강대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여 온 반면 역내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결성한 경험이 부족하며,

셋째, 아·태지역은 과거 일본, 중국 등 역내 강대국으로부터의 被侵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 있어 역내 인종갈등, 영토분쟁으로 인한 상호간의 불신이 아직도 불식되지 않은채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넷째, 회원국의 다양한 경제력을 들 수 있다. 역내 회원국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제발전의 단계, 경제력 격차 등은 지역협력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추진속도, 그리고 협력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합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APEC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견해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우며,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양 진영에서는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태경제협력체의 실질적 지도력의 존재여부이다.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공동체가 활발하게 진행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지루한 타협과 협상을 통하여 서로 상충하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아·태지역의 내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아·태경제협력체의 순조로운 진행을 낙관할 수 만은 없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아·태지역의 막대한 무역규모를 지적하면서 APEC의 순조로운 진행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량적 분석은 역내 경제흐름의 지역적 편향성을 간과하고 있다. APEC의 발전문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역내 국가들이 아·태지역 경제공동체를 설립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포괄적인 결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역내국가들은 개방정책으로의 전환과 무역장벽의 철폐를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APEC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면 무역장벽의 철폐와 자유무역의 촉진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 결과 기존의 역외국가와의 무역과 투자를 역내국가로 전환하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역내국가에 대한 직접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고, 이들에 대한 생산 및 무역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APEC의 특성으로서 다양성은 한편으로는 계약요건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역동성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회원국의 문화적·경제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연계하여 역내 역동적 발전을 도출하는 것이 APEC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연계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개자의 존재가 요청된다.

2) APEC에서의 한국의 역할

대외교역의 꾸준한 확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은 이제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문턱에 와 있다. 이에 한국경제도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제시장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대외교역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대내적으로 경제제도 개혁작업과 병행하여 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를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수출상품구조를 고도화하고 독자적 해외마케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수출잠재력 배양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부응하여 선진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며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력을 강화하여 수출잠재시장을 확충한다.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은 매우 독특한 지정학적, 전략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주변강대국인 중국은 한국을 자국 경제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일본은 경제력을 토대로 하여 한반도의 유사시에 국사적 대응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내심 우리의 경제력에 경쟁심과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역내에서 우리는 매우 특이한 위치에 있다(최한수 1995)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태 경제협력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불리한 입장을 보완, 만회하고 우리의 여력과 잠재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한국은 APEC의 설립 당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로서 인식되었을 뿐이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적 민주화에 큰 진전을 이루면서 중국의 변화에 따라 북미와 태평양 연안국가들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송회영 1995). 그러면 APEC에서 한국이 담당할 역할은 무엇인가?

3) APEC을 통한 미·일과의 통상협력강화

최근에 들어오면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개방과 자유화의 폭을 더욱 확대하도록 강하게 요청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쌍무적인 협상을 통해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APEC을 통한 회원국과의 공동 대처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간 경제무역의 불균형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지역협력체제의 구축

한국은 EUNA NAFTA 등과 같은 지역 이기주의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견제하고, 한국의 대외협상력을 제고하며, 공동이해국과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방적인 지역 협력체제의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PEC과 같이 개방적이고 광범위한 지역협력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는 협상력이 약한 한국에게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견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 아·태국가간 협력분위기 조성 및 상호 보완적 협력사업의 진전은 한국의 경제적 실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한국의 정치, 외교적 위상을 강화시켜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한편 아·태 경제협력에 구심력을 제공하고 각국간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아·태지역 중 비교적 생산요소간의 상호 보완성이 높은 동북아 지역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동북아 경제협력권의 형성은 한국의 산업구조를 다양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경제협력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남북한 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정치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 미국을 위시한 역외 선진국에 치중하여 있고 에너지 및 주요 공업원료 역시 ASEAN 등의 역외 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동북아 경제권 논의가 배타적 속성을 지닌 블록화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동북아지역 내에서의 유기적 협력체가 결성되더라도 역내 제국의 산업구조가 특화는 되나 호혜적인 국제분업체제로 정착되지 못할 경우 한국은 기술 및 산업구조상의 대일본 종속을 피하기 어려우며 동시에 주변 연안 공업지역의 공업화 성장에 의한 국내 노동집약 산업의 박탈위험이 높아지는 등의 이중적 손실이 유발될 수 있다.

5) 역내 선진국·개도국의 이해조정 역할

APEC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다양한 특성을 존중하고 포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여러나라의 이해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중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한국은 APEC 회원국 중 선진국권, 중화권, ASEAN, 오세아니아권, 미주권 등 특정권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경제력, 과학기술력에서 중위권에 위치하여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할

1) 중개자 역할(bridging role)

한국은 APEC을 통하여 남북 과학기술 협력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은 APEC내 선진국과 후진권을 연계하는 역할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중재할 수 있는 객관적, 중립적인 조율의 역할이 요청된다. 더욱이 한국은 경제력, 과학기술력에서도 중위권에 속하고 있어 산업선진국에서부터 개발도상국까지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는 회원국의 의사를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제2차 APEC 과학기술 각료회의를 개최하였으며 APEC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하여 역내 과학기술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협력은 선진국중심으로부터의 기술획득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선진국과의 협력성고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성과를 우리 과학기술의 세계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협력을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차 과학기술 각료회의에서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협력의제를 도출하여 '창조적 과학기술 연구인력개발 및 교류촉진(Creativity and Mobility: Researchers Across APEC)'을 주주제로 선정하고 이의 실행 메카니즘으로 한국이 제안한 'APEC 과학기술 네트워크(APEC Science and Technology Network, ASTN)'를 추진하였다.

2) APEC 과학기술 네트워크(APEC Science and Technology Network, ASTN)

2차 APEC과학기술 각료회의에 참가한 각료들은 회의 주 주제인 '창조적 과학기술 연구 인력 개발 및 교류촉진'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역내 과학·공학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서 한국이 제안한 'APEC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추진하였다. ASTN은 역내 연구·교육분야의 우수연구센터(Centers of Excellence, COEs)를 연계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의 역내 협력을 촉진·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ASTN의 제안된 기능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연구자교류 프로그램〉

ASTN의 연구자교류 프로그램은 기존의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과학재단(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KOSEF)은 '95.10 1차 APEC 과학기술 각료회의에 'APEC post-doc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으며 동 프로그램을 ASTN의 연구자교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개발관리 훈련 프로그램〉

ASTN의 연구개발관리 훈련 프로그램은 역내 APEC 회원국의 연구개발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되었으며 개도국 관련자에 대한 연구개발관리 훈련 및 회원국에 대한 과학기술 개발경험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연구개발 관리훈련을 위한 센터를 구상 중이다.

〈연구설비 공유 프로그램〉

역내 우수연구소(Centers of Excellence, COEs)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첨단 연구설비의 공유·활용을 포함한다. 일본이 동 프로그램과 유사한 'Mutual Utilization of Research Facilitie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바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연구설비 공유 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 네트워크〉

ASTN의 성공여부는 관련 정보 즉 연구인력, 설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효율

적으로 교류·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기존 역내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인 ASTN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냐가 ASTN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APEC내 산업과 학기술 실무그룹에서는 'APEC Science and Technology Web(AST Web)'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ASTN과 협력이 용이한 상황이다. ASTN은 한국과학기술원(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이 coordinating 기관으로서 참여하며 관련 전문기관의 공조체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ASTN은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며 회원국의 우수 연구센터, 공공·민간연구기관 등이 주요 참여대상이다.

【참고문헌】

1)송희영, 'APEC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적역할', 21세기 APEC의 비전: 과제와 전망, 김용제 편저, 서울 프레스, 1995.

2)최한수, 'APEC과 한국의 정치적 역할', 21세기 APEC의 비전: 과제와 전망, 김용제 편저, 서울 프레스, 1995.

3) Yu, Seongje and Sung Chul Chung, 'A MNRTR as a basic infrastructure for S&T Cooperation in the APEC region,' Workshop for the Seoul APEC S&T Ministers' Conference, Cheju, July 9, 1996.

주석1)과학기술국제협력단 대외정책연구실(Tel: 02-783-8123)